주요개념 : 모유 수유, 인공수유지각

초기 모유 수유와 인공 수유에 따른 초산모의 신생아에 대한 지각 비교*

이 애 란** · 박 문 희***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아동은 성장과 발달을 지속하는 개체로써 영아 초기의 모아 상호 작용은 아동의 건강을 결정하는 기초가 된다. 더욱이 의존성을 특징으로 하는 초기 영아는 생존이나 생존의 질이 그의 어머니로부터 큰 영향을 받으며, 산후 초기에 형성된 모성 정체감은 신생아와의 상호 작용에 있어서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Turley, 1983). 즉 어머니로 하여금 보다 친밀하고 적극적인 태도로 아기와의 관계형성을 가능하게 하며, 아동은 미래 사회를 살아나가는데 있어서 정서적인 적응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된다(Rubin, 1984). 이러한 견지에서 Rubin은 부모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자신감'을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하면서, 산후 초기의 어머니의 자신감이 아동이 성장함에 따라 성취감을 획득하게 하는데 큰 변수로 작용한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이에 70년대 신생아에 대한 어머니의 감정을 조직적으로 기술한 연구 보고서를 시작으로 그동안 모아 상호 작용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Robson, 1970 ; Klaus & Kennel, 1972 ; Aimsworth, 1979 ; 김, 1990 ; 박, 1991 ; 한, 1991 ; 김, 1993).

Klaus(1982)는 지속적인 접촉은 애착을 위한 중요한 열쇠이고, 모유 수유를 통한 만족은 어머니와 아기를 밀접하게 연결시켜 주는 것을 촉진한다고 하였다. 또한 돌봄의 질은 모유 수유를 통해서 향상된다고 Bloom(1981)도 주장하였다. 그는 아동의 욕구에 대한 어머니의 민감성은 빈번한, 밀접한 접촉의 과정을 통해 증가하며,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 어머니는 어떻게 하면 아기를 정서적으로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지를 알게 되며, 모유 수유를 통하여 자주 접촉하고 안아주고 눈을 마주침으로써 애착이 향상되며, 어머니는 아기를 보다 더 가까이에서 볼 수 있고, 그녀의 손길에 대한 반응을 관찰 할 수 있다고 하였다. Rutledge(1987)의 분만 6주된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모유 영양을 실시한 어머니가 분유 수유나 혼합 영양을 실시하는 어머니에 비해서 아기를 보살피는 행위에 대해 스스로 유능하다고 지각한다고 하였다. 김(1990)의 연구에서도 모유 수유를 실시한 초산모가 수유하는 과정동안에 아기와의 밀접한 관계가 형성되어 아기를 보살피는 것을 자신있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모유 수유율은 1970년대에 94%(가족 계획 연구원, 1977), 1980년대에 68.9%(한국 인구 보건 연구원, 1982)였고, 1990년대에는 35.4%(이, 1992)로 매우 저하되었다. 또한 최(1995)의 연구에 따르면 모유 수유 실천율이 분만 후 2주에는 53.3%, 4주에는 45.5%, 8주에는 35.1%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매우 낮아지는 현상을 보이며, 이(1995)의 연구에서

* 본 연구는 원광보건전문대학 교내 연구비 지원에 의해서 수행되었음
** 원광보건전문대학 간호학과
***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도 분만 후 4주의 모유 수유율이 29.7%, 분유 수유율이 30.7%, 모유와 분유를 함께 실시하는 혼합 영양이 39.6%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있기까지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가능하나, 병원에서 분했을 경우 신생아와 산모의 조기 접촉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생아의 초기 간호를 타인에게 맡기게 되므로 퇴원 후 집에 돌아가서도 병원에서의 인공 젖꼭지에 익숙해진 아기는 엄마 젖을 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는 서툰 수유 방법과 회음부 상처의 불편감 때문에 모유 수유를 하고자 하는 노력 대신 빨리 포기해 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고 조(1992)는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였다. 또한 김(1993)은 어머니들이 임신때부터 모유 수유를 위해 유방 준비를 시작하여 분만 직 후 곧 수유를 시작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산전에는 무계획 상태로 있다가 분만 후 서투른 방법으로 시도하려니까 어머니와 여아 모두 수유 방법에 적응하지 못해 여아는 젖이 잘 나오지 않으므로 계속 울어대고 그것을 보는 어머니는 더욱 불안감을 느끼게 되어 쉽게 포기하게 되며, 악순환처럼 모유 수유 횟수는 줄어들고 모유량은 자연히 줄어들으므로 모유 수유를 포기하게 된다고 어머니들의 산전 준비가 없음을 문제시 하였다.

Hall(1980)은 영아의 특성과 행위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에 따라 모아 상호 작용이 변화되므로 출생 초기에 영아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은 둘 사이의 건강한 유대관계 형성과 발달에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자는 분만 후 초기의 수유 방법에 따른 지각을 비교함으로써 어머니로 하여금 산전 간호를 통하여 모유 수유를 준비하게 하며, 아기에 대한 긍정적인 지각을 갖음으로 어떠한 신체적, 상황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모유 수유를 실천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초산모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아기에 대한 지각을 비교한다.
2) 모유 수유와 인공 수유에 따른 초산모의 아기에 대한 지각을 비교한다.
3) 모유 수유와 관련된 일반적 특성과 모유 수유시의 문제점을 파악한다.

Ⅱ. 문헌 고찰

1. 모유 수유

모유는 생후 초기부터 영아에게 있어서 그 어떤 다른 영양법으로도 모방할 수 없는 가장 완전한 식품으로써 신비에 가까울 정도로 모아 양측에 신체적 측면 뿐만 아니라 사회 정서적 측면으로도 충족 효과와 유익함이 있기 때문에 영유아의 건강과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소들 중에서도 가장 결정적이고 직접적인 중요성이 있다(변, 1994). 즉 모유를 먹는 영아는 어머니의 피부 접촉을 통하여 감각적인 만족을 갖게 되므로 감각 발달이 촉진되며 감각 발달은 생후 5개월 이후 인지 발달에 기초가 되므로 모유 수유를 통한 피부 접촉은 영아의 감각 발달 및 인지 발달의 촉진 요건이 되기도 한다(박, 1983). 따라서 김(1993)은 분만 4개월동안은 꼭 모유 수유를 실시하는 것이 좋으며, 최소한 6개월, 1년까지 지속하면 더욱 좋다고 하였다.

그러나 최근 모유 수유율이 현저히 감소하여 매우 걱정스러운 상태에 이르렀다. 이처럼 모유 수유가 감소하고 인공 수유가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 송(1989)은 인공유가 모유보다 영양학적으로 우수하다는 잘못된 선입관과 여성의 교육 수준 향상으로 사회 진출의 증가, 병원 분만과 빈번한 제왕절개 수술, 분유 회사의 과대 선전, 모유에 대한 전문 의료인의 무관심을 들었다. 또한 분만 후 초기 병원에서의 수유 방법이 모유 수유 결정에 주요한 요인이 되는데, 이는 분만 후 초기의 이른 모유 수유 실시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병원에서의 의료인의 무관심한 태도, 인공 수유에 대한 잘못된 권유, 모자 동실이 안되고 있는 등의 요인들이 모유 수유의 실천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송(1993)은 주장하였다.

또한 오(1994)의 연구에서는 모유 수유의 필요성을 못느낌, 유즙 부족, 유두 균열 및 동통, 아기의 거부등을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하였다. 특히 초유 수유가 유익한 줄은 알지만 수유를 하지 못하는 이유로 어머니가 직장으로 젖을 떼기 힘들까봐, 아기가 황달로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젖이 잘 나오지 않아서, 아기가 안먹으려 해서, 제왕 절개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유두가 함몰되어서, 어머니의 혈압 강하제 복용으로, 조산으로 아기가 보육기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물젖이라서, 어머니의 체형이 변할까봐 걱정이 되어서, 젖 몽우리가 생겨 젖을 줄 수가 없다고 판단되어서, 아기가 빨지

않아서, 회음부가 불편해서, 난산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어머니의 직장때문에 젖을 떼기 힘들까봐라는 두려움이나 유두가 함몰된 경우, 물젖이라서, 어머니의 체형이 변할까봐, 젖 몽우리가 생겨서, 아기가 빨지 않아서 등은 분만후 유방 관리와 수유 방법에 대한 시범 교육과 정서적 지지와 같은 간호 중재를 통해서 시정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또한 임신중 산전 진찰 과정에서 모유 수유의 장점을 강조하는 교육이 시급하다. 가족의 구조가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바뀜에 따라 여성들이 모유 수유에 대한 정확한 지식 습득의 기회가 적고 모유 수유 하는 것을 관찰할 기회나 학습 대상이 되는 역할 모델이 거의 없어 자연스러운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들이 향후 모유 수유를 실천해야 하는 경우 수유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되고 모유 수유 과정에서 겪는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여 결국 포기하기 쉽다. 그러므로 산전 관리시 임부의 개인적, 사회적 환경에 맞추어 개별적인 접근법을 적용해 모유 영양의 장점과 수유 방법에 대해 슬라이드, 비디오, 소책자를 통해 교육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김, 1993).

즉 모유 수유를 증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모유 수유에 대한 홍보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 이는 모유 수유에 대한 지식 부족은 모유 수유하려는 동기와 직접적인 실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또한 모유 수유 실천을 위해 아기를 기르는 어머니의 인식과 노력 뿐만 아니라 모유 수유를 실행할 수 있는 현실적인 사회 환경 및 분위기 조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모유량의 부족은 더 이상 절대적인 장애 요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야 한다. 왜냐하면 모유 수유를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거의 대부분의 수유부에게서 모유량 부족 현상은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유 수유에 필요한 제반 지식 부족과 부적절한 사회 환경의 여건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최, 1996). 또한 모유 수유를 성공적으로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나 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모유 수유율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살펴보면 산전 관리시 모유의 장점을 교육하고 산후에는 모유 수유를 지지하며 병원 당국에서는 모자 동실 제도를 실시하고 임산부를 간호하는 병동에서는 모유 수유 프로토콜이나 간호 중재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중복되거나 빠짐없이 모유 수유 교육을 시켜 나가는 통합적인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또한 국가적으로 배우자나 가족의 지지를 위해 양친 교실을 운행하거나 의료계에서는 모유 수유 간호사 제도를 확립하고 출산한 여성에게는 3개월이상 산후 휴가를 법적으로 정착시키며, 직장 탁아소 제도등의 직장 여성을 위한 모유 수유실의 설치 같은 좀 더 실질적인 모유 수유 권장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조, 1992). 모유 수유에 대한 교육 내용으로는 모유 생성 과정과 모유의 우수성, 모유 수유를 위한 유두 관리, 유방 맛사지 및 수유 시도 시기, 수유 방법과 수유 간격, 남은 젖 처리 방법, 산모의 신체 관리, 영양 관리, 심리 상태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김, 1989).

그리고 분만 후 모자 동실을 실시한 결과 모유 수유 실천 정도는 모자 동실을 하지 않은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모자 동실을 한 경우에 있어서는 퇴원 후 모유수유를 실시하였을 때 큰 문제를 경험하지 않았다는 김(1989)의 연구 결과를 유념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산모에게 생후 3-5일간이 성공적인 유즙 분비에 가장 중요한 시기임을 주지시켜 분만 후 바로 수유를 시작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모자 동실로 있도록 배려해 주며(김, 1991), 모자 동실을 머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라면 그 대안으로 모아 별실인 수유실을 두어 모유 수유를 격려한다면 모유 수유율이 높아지는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 사려된다(최, 1996).

최와 김(1995)은 수유 실천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퇴원하는 산모에게 모유 수유 퇴원팩을 공급한 결과 모유 수유 퇴원팩을 받은 군이 다른 군에 비해서 모유 수유 실천율이 유의하게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다만 분만후 4주와 8주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이는 모유 수유를 증진시킬 수 있는 또하나의 가능성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같이 간호사가 건강 행위를 위한 정보 전달자로써 전문성이나 권위가 있어야만 산모의 태도 변화를 긍정적으로 유도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수유 전문 간호사의 제도의 도입을 제언한 김(1997)의 의견에 동의하는 바이다.

2. 어머니의 아기에 대한 지각

어머니의 역할은 어머니로서의 책임감과 어머니 자신의 영아에 대한 긍정적인 관심으로 나타난 인지적-정의적 측면의 정체감 확립에 그치지 않고, 확립된 정체감에 알맞은 행동을 역할 세트안에 통합시키는 가운데 어머니로써의 역할을 자신있게 수행해 나가는 과정이다. 즉 어머니의 역할획득은 모아 상호 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며, 어머니의 역할 획득에 대한 실증적인 자료는 영아 돌보기 활동에 대한 어머니의 자신감이다. 그것은 영아의 의존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어머니 역할의 대부분이

영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영아의 신체적 건강과 안위에 관련된 돌보기 활동에 속하기 때문이다(Ramona, 1985). 따라서 아기의 욕구를 알아 차릴 수 있는 어머니의 능력은 어머니와 아기 모두에게 유용하다. 즉 어머니가 아기에 대해 인식을 잘 할수록 아기의 생리적 욕구, 신체적 접촉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이러한 어머니와 아기의 상호 관계는 결과적으로 아기가 잘 자라도록 하는 원초적인 힘을 제공한다(Deidre, 1985).

그런데 영아에 대한 어머니의 초기 반응은 다양한 영아 행위와 아기와의 상호 작용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모아 관계에 만족하고 보상을 느끼면 어머니는 영아를 긍정적으로 지각하지만, 기대와 현실에 부합하지 못하면 어머니는 신생아에게 흥미를 잃고 부모로써 적절하지 못하다는 생각으로 죄책감과 우울에 빠지기도 한다(Clark, 1976). 어머니의 아기에 대한 긍정적인 지각은 출생 이후 전 생애를 통해 신뢰감을 형성하고 편안함을 느끼며, 사물의 관계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므로 올바른 모아 관계 형성의 필수 요건이 된다. 특히 다음의 두가지 요소가 신생아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데, 첫째는 영아의 기질, 행위와 육체적인 모습에 대한 어머니의 최초의 반응이고 둘째는 어머니의 희망과 공포인데 이것은 자기 아기는 어떨 것이라는 편견에 따라 달라진다(이, 1981).

신생아에 대한 긍정적인 지각은 모아 애착을 발달시키는데 영향을 미치며, 영아의 전 생애를 통한 건강한 정서적 발달을 보장한다. 따라서 신생아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을 사정하는 것은 초기 어머니의 경험을 이해하고 앞으로의 간호를 계획하는데 중요하다(Weingarten, 1990). Broussard(1976)도 어머니와 아동의 관계가 건강하게 발달하기 위해서는 어머니가 자신의 아기를 보통의 영아보다 더 좋게 인지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미래의 아동의 정서적 발달에 대한 중요한 예측으로 어머니의 지각에 대한 초기 사정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김(1990)은 초산모의 영아에 대한 지각과 모아 상호작용 양상과의 관계에서 영아의 감정, 태도, 인지등 지각이 긍정적인 경우 더 민감한 상호 작용을 나타냈다고 보고 하였다. 즉 엄마가 아기를 긍정적으로 지각하는가 부정적으로 지각하는가를 평가하는 것은 간호 계획을 설정하는데 중요한 지침이 된다고 주장한다. 김과 정(1995)의 연구에 의하면 정상 신생아 어머니의 신생아에 대한 지각은 고 위험 신생아에 대한 지각보다 긍정적이었다. 그러나 어머니의 연령, 분만 형태, 아기의 성별, 분만력에 따른 신생아의 지각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자기 어머니로부터 평균 이하로 인식되는 영아는 평균 이상으로 인식되는 영아보다 그 이후의 정서적 발달에 큰 위험을 갖게 되며 또한 부모의 지각에 의한 부모-영아 관계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스트레스는 아동에게 복구될 수 없는 손상을 초래한다. 따라서 어머니가 아동을 어떻게 지각하느냐 하는 것은 아동의 신체적 지적, 정서적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영아에 대한 성장과 발달의 이해는 영아에 대해 어머니가 실제적인 기대를 구조화 하는데 필요하다. 그러므로 간호사는 적어도 어머니와 아기가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지지, 안내, 교육을 시작해야 한다(Powel, 1981). 산욕 초기 어머니의 자녀 돌보는 활동 즉 양육 행동이 성공적으로 달성되면 어머니로써의 자아 개념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어머니로써의 만족감을 느끼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 초산모들이 신생아 돌보기에서 특히 어려워 하는 것은 목욕시키기, 배꼽 소독하기, 울음 파악하기, 아기 상태 파악하기 등이었고, 비교적 수월하게 생각하는 것은 기저귀 갈기와 옷 입히기, 안아주기, 예방 접종 시키기 등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그동안 대가족 제도 하에서 친정이나 시집의 부모 친족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어려움 없이 습득되어 오던 자녀 양육 방법과 기술이 근래에 이르러서는 실제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상황이라는 것을 반영한다. 따라서 전문 간호사의 간호 중재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히 요망된다(이, 1996).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는 익산시에 있는 1개 종합 병원에서 건강한 첫째아기를 분만한 초산모 9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중 42명은 분만후 모유 수유를 실시하였는데, 모자 동실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었으나, 신생아실 옆에 모유 수유실을 만들어 어머니가 원할 때 언제든지 와서 아기에게 모유 수유를 실시하게 하였다. 나머지 56명은 모유 수유를 전혀 실시하지 않았으며 아기를 안아보지도 못하고 창 밖에서 모습만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

자료는 1996년 12월부터 1997년 6월까지 수집하였다. 분만 후 2-3일에 연구자가 산모를 방문하여 설문지를 배부하고 답하도록 하여 모유 수유를 실시한 산모에게서 42부, 모유 수유를 실시하지 않은 산모에게서 56부를 회수하였다.

2. 연구 도구

본 연구의 도구는 1963년 Elisie Broussard가 개발한 신생아 감지 평가 도구를 이자형(1986)이 수정 보완하여 만든 신생아 지각 도구(Neonatal Perception Inventory)를 사용하였으며, 도구의 신뢰 계수(Cronbach's alpha)는 0.78이었다. 총 문항은 30문항으로 다른 아기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 15문항, 자기 아기에 대한 지각 15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최고 점수는 75점, 최저 점수는 15점으로 분포한다. 신생아 지각 도구는 점수가 높을 수록 아기의 욕구를 적절히 충족시키지 못하며 아동과의 적절한 상호 작용을 이루지 못하는 상태임을 의미한다. 또한 이 도구를 이용하여 일반 신생아에 대한 지각과 자기 신생아에 대한 지각의 차이(일반 신생아에 대한 지각－자기 신생아에 대한 지각)를 산출하여 어머니가 자기 아기를 어떻게 지각하는지, 즉 ＋(positive) 점수가 되면 자기 아기를 긍정적으로, －(negative)점수 또는 동점이 되면 자기의 아기를 부정적으로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판정한다. 본 연구자는 도구를 아기의 욕구에 대한 지각(5문항), 아기의 감각－운동에 대한 지각(5문항), 아기의 돌봄에 대한 지각(4문항), 그외(1문항)으로 구분하였다.

3.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를 이용하여 전산 통계 처리 하였으며, X^2검증, t－test, ANOVA 로 모유 수유 산모와 모유 수유를 실시하지 않은 산모의 아기에 대한 지각을 비교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초산모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신생아에 대한 지각 비교

초산모의 연령 분포는 20세 이하가 4.1%, 21－25세가 21.4%, 26－30세가 64.4%, 30세 이상이 10.2%이었고,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전업 주부가 79.6%, 취업 주부가 20.4%이고, 중학교를 졸업한 초산모가 6.1%, 고등학교를 졸업한 초산모가 55.1%, 대학교를 졸업한 초산모가 38.8%이었다〈표 1－1〉.

초산모들의 다른 아기에 대한 지각을 연령에 따라서 비교한 결과 21－25세 초산모가 43.57점, 26－30세 초산모가 42.69점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고, 직장의 유무에 따라서도 전업 주부는 42.83점, 취업 주부는 43.30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학력에 따라서는 중학교를 졸업한 초산모가 45.83점 대학교를 졸업한 초산모가 42.68점으로 중학교를 졸업한 초산모의 점수가 높지만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표 1－2〉.

〈표 1－1〉 초산모의 일반적 특성

초산모의 특성	구 분	실 수	%
연 령	20세 이하	4	4.1
	21－25세	21	21.4
	26－30세	63	64.3
	31세 이상	10	10.2
직 업	전업주부	78	79.6
	취업주부	20	20.4
학 력	중 졸	6	6.1
	고 졸	54	55.1
	대 졸	38	38.8

〈표 1－2〉 초산모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다른 아기에 대한 지각 비교

특 성		실수	평균	표준편차	value	P
연령	20세 이하	4	43.00	4.32		
	21－25세	21	43.57	5.54	F=0.15	0.92
	26－30세	63	42.69	4.96		
	31세 이상	10	43.00	5.86		
직업	전업주부	78	42.83	5.20	t=0.36	0.71
	취업주부	20	43.30	4.75		
학력	중 졸	6	45.83	4.26		
	고 졸	54	42.77	4.89	F=1.04	0.35
	대 졸	38	42.68	5.46		

〈표 1－3〉 초산모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 아기에 대한 지각 비교

특 성		실수	평균	표준편차	value	P
연령	20세 이하	4	31.75	8.05		
	21－25세	21	40.42	6.12	F=2.00	0.11
	26－30세	63	40.12	6.58		
	31세 이상	10	39.10	8.98		
직업	전업주부	78	39.52	7.07	t=－0.62	0.53
	취업주부	20	40.60	6.35		
학력	중 졸	6	45.66	4.76		
	고 졸	54	39.44	6.86	F=2.42	0.09*
	대 졸	38	39.23	6.98		

*P<0.1

초산모들의 자기 아기에 대한 지각을 비교한 결과 연령에 따라서는 20세 이하의 초산모가 31.75점, 21－25세의 초산모가 40.42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직업의 유무에 따라서 전업 주부는 39.52점, 취업 주부는 60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학력에 따라서 중학교를 졸업한 초산모는 45.66점, 대학교를 졸업한 초산모는 39.23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1$). 이는 중학교를 졸업한 초산모가 아기의 능력을 낮게 평가하며, 아기를 돌보는 행위에 대해 자신감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표 1－3〉.

2. 모유 수유와 인공 수유에 따른 초산모의 신생아에 대한 지각 비교

모유 수유를 실시한 초산모와 모유 수유를 실시하지 않은 초산모의 일반적 특성을 비교한 결과 연령, 직업의 유무, 학력과 같은 특성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표 2－1〉.

모유 수유를 실시한 초산모와 모유 수유를 실시하지 않은 초산모들의 다른 아기에 대한 지각을 비교한 결과 두 군사이에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아기에 대한 전반적 지각에 있어서 모유 수유군은 42.19점, 인공 수유군은 43.48점으로 모유 수유군의 점수가 약간 낮아

〈표 2－1〉 모유 수유군과 인공 수유군의 일반적 특성 비교

특	성	모유수유군(%)	인공수유군(%)	X^2	P
연령	20세 이하	1(2.4)	3(5.4)		
	21－25세	7(16.6)	14(25.0)	1.76	6.22
	26－30세	29(69.0)	34(60.7)		
	31세 이상	5(11.9)	5(8.9)		
직업	전업 주부	32(76.2)	46(82.1)	0.22	0.63
	취업 주부	10(23.8)	10(17.9)		
학력	중졸	2(4.8)	4(7.1)		
	고졸	23(54.8)	31(55.4)	0.27	0.87
	대졸	17(40.5)	21(37.5)		

〈표 2－2〉 모유 수유군과 인공 수유군의 다른 아기에 대한 지각 비교

구 분		실수	평균	표준편차	t－값	P
아기에 대한 전반적 지각	모유 수유군	42	42.19	4.62	－1.24	0.21
	인공 수유군	56	43.48	5.40		
아기의 욕구에 대한 지각	모유 수유군	42	14.40	2.27	－0.29	0.76
	인공 수유군	56	14.55	2.62		
아기의 감각－운동 능력에 대한 지각	모유 수유군	42	12.64	3.39	－0.75	0.45
	인공 수유군	56	13.19	3.80		
아기 돌봄에 대한 지각	모유 수유군	42	13.85	2.72	－0.07	0.94
	인공 수유군	56	13.89	2.52		

〈표 2－3〉 모유 수유군과 인공 수유군의 자기 아기에 대한 지각 비교

구 분		실수	평균	표준편차	t－값	P
아기에 대한 전반적 지각	모유 수유군	42	39.28	6.48	－0.57	0.57
	인공 수유군	56	40.08	7.26		
아기의 욕구에 대한 지각	모유 수유군	42	12.97	2.52	－2.13	0.03**
	인공 수유군	56	14.10	2.66		
아기의 감각－운동 능력에 대한 지각	모유 수유군	42	11.90	3.79	－0.23	0.81
	인공 수유군	56	12.08	3.91		
아기 돌봄에 대한 지각	모유 수유군	42	12.80	3.02	0.50	0.62
	인공 수유군	56	12.50	3.08		

** $P<0.05$

비교적 모유 수유를 하는 초산모들이 아기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며, 아기를 돌보는 일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구분하여 아기에 대한 지각을 비교하였으나 두 군사이에 차이가 없었다〈표 2-2〉.

모유 수유를 실시한 초산모와 모유 수유를 실시하지 않은 초산모의 자기 아기에 대한 지각을 비교한 결과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평균 점수를 비교한 결과 모유 수유 초산모는 39.28점, 인공수유군은 40.08점으로 모유 수유를 실시한 초산모의 점수가 모유 수유를 실시하지 않은 초산모보다 점수가 낮았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아기의 욕구에 대한 지각이 모유 수유군에서 12.97점, 인공수유군에서 14.10점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데($P<0.05$), 이는 모유 수유를 실시한 초산모가 아기의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아기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는 특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아기의 감각-운동 능력이나 아기를 돌보는 것에 대한 지각은 두 군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다만 아기를 돌봄에 대한 지각에 있어서 모유 수유군이 12.80점, 인공수유군이 12.50점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지만 모유 수유군이 오히려 약간 높은 점수를 보이는데, 이는 아기에게 모유수유를 실시하며 아기를 보살피는 과정 중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표 2-3〉.

신생아에 대한 긍정-부정적 지각을 비교한 결과 모유 수유를 실시한 초산모의 69%, 모유 수유를 실시하지 않은 초산모의 69.9%에서 아기에 대하여 긍정적인 지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정적인 지각을 하는 초산모는 모유 수유 초산모에서 26.2%이고 모유 수유를 실시하지 않은 초산모가 16.1%로써 오히려 모유 수유를 실시하는 초산모가 높은 비율을 보이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도 모유 수유군와 모유 수유를 실시하지 않은 군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기의 욕구, 감각-운동 능력에 대한 긍정적인 지각은 모유 수유 초산모에서 높은 비율을 보이나, 아기를 돌보는 행위에 있어서는 모유 수유 초산모가 오히려 낮은 비율을 보이는 것에 주목을 해야 할 것이다〈표 2-4〉.

〈표 2-4〉 모유 수유군과 인공 수유군의 아기에 대한 긍정-부정적 지각 비교

구 분		긍정(%)	부정(%)	동점(%)	X^2	P
아기에 대한 전반적 지각	모유 수유군	29(69)	11(26.2)	2(4.8)	3.33	0.18
	인공 수유군	39(69.6)	9(16.1)	8(14.3)		
아기의 욕구에 대한 지각	모유 수유군	24(57.1)	11(26.2)	7(16.7)	1.24	0.53
	인공 수유군	26(46.4)	20(35.7)	10(17.9)		
아기의 감각-운동능력에 대한 지각	모유 수유군	21(50.0)	13(31.0)	8(19.0)	1.44	0.48
	인공 수유군	27(48.2)	13(23.2)	16(28.6)		
아기 돌봄에 대한 지각	모유 수유군	24(57.1)	10(23.8)	8(19.0)	0.98	0.61
	인공 수유군	34(60.7)	9(16.1)	13(23.2)		

3. 모유 수유와 관련된 일반적 특성과 수유시의 문제점

모유 수유를 실시한 초산모들이 모유 수유를 처음으로 실시한 날짜는 분만 후 1일이 54.8%, 2일이 26.2%,

〈표 3-1〉 모유 수유와 관련된 일반적 특성

특 성	구 분	실수	%
모유 수유를 처음 실시한 날짜	분만 후 1일	23	54.8
	2일	11	26.2
	3일	8	19.0
모유 수유 횟수/일	1-2회	14	33.3
	3-4회	16	38.0
	5회 이상	8	19.0
	무응답	4	9.5
모유 수유를 권장해준 사람	스스로	35	83.3
	부모님	3	7.1
	간호사	4	9.5
모유 수유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경험	있다	9	21.4
	없다	33	78.6
모유 수유시의 어려움	있다	29	69.0
	없다	11	26.1
	무응답	2	4.7

3일이 19.0%로써 분만후 1일에 수유를 시도하는 초산모가 많았다. 일일 모유 수유 횟수는 3-4회/일이 38.0%로 가장 높았으며 1-2회/일은 33.3%로 나타났다. 모유 수유를 권장해준 사람 없이 스스로 알아서 모유 수유를 시도했다는 초산모가 83.3%이고 간호사가 모유 수유를 권장해서 모유 수유를 하게 되었다는 초산모는 9.5%에 불과하다. 또한 모유 수유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전혀 없은 초산모가 78.6%에 이르렀는데, 간호사에 의해서 모유 수유를 권장 받지 못하며,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모유 수유 시에 어려움을 호소한 초산모가 69.0%에 이른다는 사실은 매우 주시할 내용이다〈표 3-1〉.

〈표 3-2〉 모유 수유시의 문제점

문 제 점	실수
모유가 잘 나오지 않는다	10
수유 방법을 잘 모른다	7
함몰 유두이다	6
아기가 잘 빨지 않는다	5
아기를 안고 있는 것이 힘들다	5
아기의 수유 시간을 맞추기 힘들다	2
유두가 아프다	1

모유 수유를 실시한 초산모들이 호소하는 문제점으로써 모유가 잘 나오지 않는다(10명), 수유 방법을 모른다(7명), 함몰 유두이다(6명), 아기가 젖을 빨지 않는다(5명), 아기를 안고 있는 것이 힘들다(5명), 아기의 수유 시간을 맞추기 힘들다(2명), 유두가 아프다(1명)등이 있었다.

V. 논 의

의료인들은 종종 수유 방법이 어머니의 역할 획득이나 역할 수행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한다. 또한 모유 수유 어머니들이 인공 수유 어머니에 비해서 아기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것이며, 돌봄의 질도 모유 수유를 통해서 증가하고, 특히 모유 수유는 어머니로 하여금 만족감을 증가시킨다고 생각한다. 대한 간호 협회(1996)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모유 수유 어머니가 더 높은 모아 상호 작용 점수를 얻었다고 하였다. 모유 수유 중에 모아간의 피부 접촉은 모아 상호간의 유대 관계를 밀접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만족감을 주기 때문에 영아의 정신 건강을 증진시켜 정서적 안정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분만 2-3일에 모유 수유을 실시하는 초산모와 모유 수유를 전혀 실시하지 않는 초산모의 신생아에 대한 지각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초산모의 연령과 직업의 유무에 따라서는 신생아에 대한 지각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초산모의 학력이 낮을수록 지각 점수가 높아지며 유의한 차이가 있는데 이는 교육 수준이 낮은 초산모가 자기 아기의 능력을 낮게 평가하며 아기를 돌보는 것에 자신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박(1984)과 이(1995-b)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모유 수유를 실시한 초산모와 모유 수유를 실시하지 않은 초산모의 아기에 대한 지각을 비교한 결과, 다른 아기에 대해서는 모유 수유를 실시한 초산모가 42.19점, 모유 수유를 실시하지 않은 초산모가 43.48점이며, 자기 아기에 대해서는 모유 수유군이 39.28점, 모유 수유를 실시하지 않은 군이 40.08점으로 모유 수유를 실시한 초산모들이 비교적 아기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며 아기를 돌보는 일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구체적인 지각의 내용에 있어서, 모유 수유를 실시한 초산모는 아기의 욕구에 대한 지각에서는 12.97로써 모유 수유를 실시하지 않은 초산모의 14.10에 비하여 낮은 점수를 보이며 유의한 차이($P<0.05$)를 보이는데, 이는 모유 수유를 실시하는 초산모가 아기의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아기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는 특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아기를 돌봄에 대한 지각에 있어서 모유 수유군이 12.80, 모유 수유를 실시하지 않은 군이 12.50점으로써 유의한 차이는 없지만 오히려 모유 수유를 실시한 초산모가 약간 높은 점수를 보인 것은 주목해야 할 사실이다. 즉 아기에게 모유 수유를 실시하고 있는 과정 동안에 실제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아기에 대한 긍정-부정적 지각을 비교한 결과, 모유 수유를 실시한 초산모의 69%, 모유 수유를 실시하지 않은 초산모의 69.9%에서 긍정적인 지각을 하고 있으며, 모유 수유를 실시한 초산모의 26.2%, 모유 수유를 실시하지 않은 초산모의 16.1%에서 부정적인 지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유의한 차이는 없지만 모유 수유를 실시하는 초산모가 오히려 아기에 대해서 긍적적인 지각보다는 부정적인 지각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은 그동안의 여러 연구(Marlow, 1988 ; Mercer, 1984 ; Robbins, 1992)에 의한 모유 수유가 모아 사이에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한다는 결과와는 매우 다르다. 더욱이 주목해야 할 것은 모유 수유 초산모가 아기의 욕구, 감각-운동 능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지각을 갖는 비율이 높으나, 아기를 돌보

는 행위에 대해서는 오히려 부정적인 지각을 갖는 비율이 모유 수유를 실시하지 않은 초산모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즉 분만후 2-3일에 모유수유를 실시하는 초산모는 아기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나 모유 수유를 실천하는 과정동안에 매우 어려움을 느낌으로 오히려 신생아에 대해서 부정적인 지각을 갖을 수 있는 위험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이(1995-b)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분만 초기에 비해서 분만 후 1개월에 모유 수유를 실시한 초산모가 아기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며, 아기와 좋은 관계가 형성되어 긍정적인 관계로 변화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초산모의 경우 산후 10일쯤 되어서야 아기를 통해 자신이 엄마가 된 것을 발견하고 자신이 출산 전과 달라져야 함을 느끼면서 아기에 대한 책임감을 갖게 되지만 일상적인 영아 돌보기 활동에 대해서 잘 몰라 불안감을 갖으며 어머니 역할에 미숙함을 보인다는 박(1991)의 연구와, 산후 3일째 초산모의 어머니 역할 획득에 대한 점수는 매우 낮은 편이었으나 산후 4-6주째에는 유의하게 증가하여 산욕기 동안 어머니의 역할 획득이 점진적으로 증가함을 보인다는 이(1992)의 연구 결과에 의해서 더욱 지지된다. 그러나 이(1995-b)는 모유 수유를 실시하는 초산모들이 분유나 혼합영양을 실시하는 초산모에 비해서 분만 초기에 신생아에 대하여 부정적인 지각을 갖는 경우에는 이러한 양상이 지속되어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간호사들은 모유 수유 방법이나 유방 관리에 대해서 일찍부터 체계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함을 주장하였는데, 본 연구자도 이에 동의하는 바이다. 즉, 초기의 신생아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이 모아 애착에 영향을 미치며, 이에 따라 아동이 신체적,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는 원초적인 힘이라는 사실을 상기할 때 모유 수유를 시도하는 초산모들이 초기에 경험하는 문제들을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인지하여 보다 더 구체적이며 체계적인 교육과 정서적인 지지가 산전, 산후 특히 초기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언한다.

그러나 모유 수유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초산모가 21.4%에 불과하며 모유 수유를 권장해준 사람으로 간호사는 9.5%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송(1993)에 의한 연구에서도 모유 수유에 대한 정보는 책, 친정 부모, TV 또는 라디오를 통하여 획득하였고, 간호사와 의사로부터 모유 수유와 관련한 정보를 받은 경우는 낮은 것으로 이미 보고 되었다. 특히 질병의 예방, 건강 증진을 담당해야할 간호사로부터의 지지가 부족했던 점은 간호 실무에서 다시 한 번 재고 하여야 할 것이다.

Ⅵ. 결 론

본 연구는 모유 수유를 실시하는 초산모 42명과 모유 수유를 실시하지 않은 초산모 56명을 대상으로 하여 분만 2-3일의 신생아에 대한 지각을 비교하였다. 자료는 Broussard(1963)에 의해서 개발되고 이자형(1986)에 의해서 보완된 신생아 지각 사정 도구(Neonatal Perception Inventory)를 사용하여 1996년 12월부터 1997년 6월까지 수집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초산모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신생아에 대한 지각
   1) 연령에 따라서 신생아에 대한 지각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2) 직장의 유무에 따라서 신생아에 대한 지각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3) 학력이 낮을수록 신생아에 대한 지각 점수가 높으며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1$). 이는 학력이 낮을수록 아기의 능력을 낮게 평가하며, 아기를 돌보는 행위에 대해서 자 신감이 적고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모유 수유와 인공 수유에 따른 초산모의 신생아에 대한 지각
   1) 일반 아기에 대한 지각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2) 자기 아기에 대한 지각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1) 자기 아기에 대한 전반적인 지각은 모유 수유군이 인공 수유군에 비해서 바람직 하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2) 자기 아기의 욕구에 대한 지각은 모유 수유군이 인공 수유군에 비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3) 자기 아기의 감각-운동 능력에 대한 지각은 모유 수유군이 인공 수유군에 비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4) 자기 아기의 돌봄에 대한 지각은 모유 수유군이 인공 수유군에 비해서 어려움의 인지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3) 모유 수유와 인공 수유에 따른 초산모의 아기에 대한 긍정-부정적 지각
   (1) 아기에 대한 전반적 상태에 대한 긍정적 지각은 모유 수유군이 69%, 인공 수유군이 69.9%로써 모

유 수유군이 약간 낮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2) 아기의 욕구에 대한 긍정적인 지각은 모유 수유군이 57.1%, 인공 수유군이 46.4%로써 모유 수유군이 높은 수준을 보이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3) 아기의 감각-운동 능력에 대한 긍정적인 지각은 모유 수유군이 50%, 인공 수유 군이 48.2%로써 모유 수유군이 약간 높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4) 아기의 돌봄에 대한 긍정적 지각은 모유 수유군이 57.1%, 인공 수유군이 60.7%로써 모유 수유군이 낮은 수준을 보이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3. 모유 수유를 실시한 초산모들 중 54.8%가 분만 후 1일에 수유를 시도하였고, 83.3%가 모유 수유를 스스로 선택을 했으며 간호사에 의해서 권장을 받은 초산모는 9.5%에 불과하였으며, 78.6%에서 모유 수유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었다. 모유 수유시에 어려움이 있다고 한 초산모가 69%이었는데, 모유 수유시의 어려운 점으로는 '모유가 잘 나오지 않음', '수유 방법을 잘 모름', '함몰 유두' 등 이었다.

참 고 문 헌

김소라 외(1993). 모유 수유 실천에 관한 연구. 모자간호학회지, 3(2), 172-186.

김신정(1989). 산후 어머니로서의 적응과 모유 수유 실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신정, 정금희(1995). 산욕 초기 정상 신생아와 고 위험 신생아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 차이에 대한 연구. 아동간호학회지, 1(1), 5-15.

김영혜(1995). 지지적 간호 중재가 수유 행위와 계획적 행위 이론의 변인에 미치는 효과.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영혜(1995). 간호사의 모유 수유에 대한 지식 정도가 모유 수유 간호 활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간호학회지, 3(1), 52-61.

김태임(1990). 초산모의 영아에 대한 지각 및 양육 태도와 초기 수유 상황에서의 모아 상호 작용 양상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혜숙(1993). 모유의 신비. 에드텍.

김화숙(1991). 모유 수유를 시도했던 초산모의 모유 수유 지속 요인 분석. 연세 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효진(1993). 영아의 수유 및 보충식에 대한 조사 연구. 간호학회지, 23(3), 377-396.

대한간호협회(1996). 모유 수유 실천의 중요성과 대책. 대한간호, 35(2), 25-34.

박영숙, 변희재(1984). 산생아에 대한 산모의 감지도에 관한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14(1), 50-59.

박영숙(1991). 산욕기 초산모의 모성 전환 과정.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예숙(1983). 인간 성장의 발달과 건강 증진. 수문사.

변수자 외(1994). 수유 형태와 모유 수유에 대한 어머니들의 태도 연구. 모자간호학회지, 4(1), 52-67.

송규희(1989). 서울 시내 일부 병원에 내원한 임산부들의 모유 수유에 대한 태도 및 지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송지호 외(1993). 영유아 어머니의 모유 수유에 대한 인식 및 실천에 관한 연구. 모자간호학회지, 3(2), 153-165.

오현이 외(1994). 성공적인 모유 수유를 저해하는 요인에 대한 분석적 연구. 모자간호학회지, 4(1), 68-79.

이경혜(1992). 국내 모유 수유 실태. 생활 간호, 12, 114-116.

이애란(1995-a). 한국과 미국 초산모의 신생아에 대한 지각 비교. 대한간호학회지, 25(3), 431-440.

이애란(1995-b). 수유 형태에 따른 초산모의 신생아에 대한 지각 비교. 아동간호학회지, 1(1), 16-25.

이은숙(1992). 산욕기 초기 어머니의 역할 획득에 관한 연구, 모자간호학회지, 2(1), 5-20.

이자형(1981). 산모의 신생아에 대한 애착 행위에 대한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11(2), 9-21.

이자형(1986). 어머니의 신생아에 대한 지각 사정 도구. 대한간호학회지, 16(3), 67-77.

이자형(1996). 산욕 초기 초산모의 신생아 양육 행동. 아동간호학회지, 2(1), 5-12.

이혜경(1993). Difference of maternal role attainment in breast-feeding and bottle-feeding mothers. 충남대학교 의과대학잡지, 20(2), 667-678.

이혜경(1994). Differences in maternal role attainment for breastfeeding and bottlefeeding mothers at four months after delivery. 모자간호학회지, 4(1), 33-40.

조미영(1992). 모유 수유를 저해하는 요인과 모유 수유 권장을 위한 방안. 대한간호, 31(1), 28-34.

최영희외(1996). 모유 수유부의 모유 수유 실천에 따른 관련 요인 분석. 대한간호, 35(5), 98-109.

최자윤, 김미원(1995). 신생아실에서의 모유.수유 퇴원팩이 산후 모유 수유 실천에 미치는 효과, 아동간호학회지, 1(1), 37-46.

한경자(1991). 한국인 영아 초기 수유시 모아 상호 작용 행동 형태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21(1), 89-116.

Bloom, M.(1981). The romance and power of breast-feeding. Birth and the Family Journal, 8, 259-269.

Broussard, E.R.(1976). Neonatal prediction and outcome at 10/11 years. Child Psychiatry and Human Development, 7(2), 85-93.

Clark, A.L.(1976). Infant bahavior and maternal attachment ; two sides to the coin, MCN, 1(2), 94-99.

Deidre, M. Black(1985). Development of the infant tenderness scale. Nursing Research, 34(4), 211-216.

Hall, L.A.(1980). Effects of teaching on primiparas' perceptions of their newborn. Nursing Research, 29(5), 317-322.

Marlow, D.R.(1988). Textbook of pediatric nursing, Philadelphia, W.B. Saunders Co.

Mercer, R.T. & Stainton, M.C.(1984). Perceptions of birth experience ; A cross-cultural comparison, Health Care Woman Internat, 5(1-3), 29-35.

Ramona, T. Mercer(1985). The process of maternal role attainment over the first year. Nursing Research, 34(4), 198-204.

Robbins, M.J.(1992). Breast-feeding in the face of adversity. Maternal-Child Nursing Journal, 17(5), 243-245.

Rubin, R.(1984). Maternal identity and maternal experience. New York : Springer.

Rutledge & Pridham(1987). Postpartum mothers' perception of competence for infant care. JOGNN, May/June, 185-194.

Sally Preski, Lorraine O. Walker.(1997). Contributions of maternal identity and lifestyle to young children's adjustment. Research in Nursing and Health, 20(2), 107-117.

Turley, M.A.(1983). A meta-analysis of informing mothers Con Odors in mather-infant interaction. Maternal-Child Nursing Journal, 12(3), 147-153.

Weigarten, C.T. & Baker, K.(1990). Married mothers' perceptions of their premature or term infants and quality of their relationships with husbands. JOGNN, 19(1), 64-73.

-Abstract-

Key concept : Breast feeding, Bottle feeding, Perception

Differences in Breast feeding and Bottle feeding Primiparas' Perceptions of their Babies during the Early time of Post-partum Period

Lee, Ae Ran · Park, Mun Hee***

This study was done to compare the breast-feeding primiparas' perceptions of their babies with bottle-feeding primiparas' at 2-3 days after delivery. The subjects of this study included 42 breast-feeding mothers and 56 bottle-feeding mothers. Data were collected by using the Neonatal Perception Inventory(NPI) devised by Broussard (1963) and added by Lee, Ja Hyung(1986) from December, 1996 to June, 1997.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

1. Primiparas' perceptions of their babies according to their general characteristics.
   1)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mothers' perceptions according to mothers' age and whether they have a job or not.
   2) There was a difference in mothers' perceptions according to their educational level($P<0.1$).

* Dep. of Nursing, Wonkwang Health College
** Dep. of Nursing, College of Medicine, Chonbuk National University

2. The comparisons of breast-feeding mothers' perceptions of their babies with bottle-feeding mothers'.
   1)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two groups' perceptions of other babies
   2)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two groups' perceptions of their own babies.
   (1) Breast-feeding mothes' general perceptions of their own babies were better than bottle-feeding mothers',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2) Breast-feeding mothers' perceptions about the basic needs of their own babies were better than bottle-feeding mothers', and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P<0.05$).
   (3) Breast-feeding mothers' perceptions about the sense and motor abilities of their own babies were better than bottle-feeding mothers',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4) Breast-feeding mothers' perceptions about the necessary care of their own babies were lower than bottle-feeding mothers',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3)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positive-negative perceptions of their babies
   (1) 69% of breast-feeding mothers and 69.9% of bottle-feeding mothers had positive perceptions about general conditions,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2) 57.1% of breast-feeding mothers and 46.4% of bottle-feeding mothers had positive perceptions about the needs of babies,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3) 50% of breast-feeding mothers and 48.2% of bottle-feeding mothers had positive perceptions about the sense and motor abilities of babies,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4) 57.1% of breast-feeding mothers and 60.7% of bottle-feeding mothers had positive perceptions about the necessary care for babies,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3. 54.8% of breast-feeding mothers tried to feed their own babies on the 1st day after delivery. 83.3% of breast-feeding mothers chose the feeding method for themselves. Only 9.5% of breast-feeding mothers took recomendations for breast-feeding from nurses. 78.6% of breast-feeding mothers had no chance to learn about breast-feeding. 69% of breast-feeding mothers complained about the difficulties of breast-feeding. The most serious problems were : 'insufficient milk supply', 'lack of knowledge about feeding technique' and 'problems with nipples'.